



한국 · 인도네시아, 양국간
교역 · 투자 '현지통화거래' 협약 추진

한국봉제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Vol. 66



인니 내수 호조로 제조업 활성화



S&P글로벌의 구매관리자지수(PM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부문은 4월 내수 호조로 생산 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됐다고 3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400여 개 제조업체의 구매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 상황을 조사하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월 52.7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이것은 기업들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은 투입물 구매를 의미하는 50 수준 이상을 유지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부문이 20개월 연속으로 확장되고 있다.

S&P 경제 이사 팀 무어는 2일, 제조업 부문은 2023년 비교적 부진한 출발 이후 계속해서 탄력을 받았으며 개선된 사업 환경은 내수의 강화를 반영했고, 이는 7개월 동안 신규 주문과 생산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산업부 아구스 구미왕 카르파사스미따(Agus Gumiwang Kartasasmitta) 장관은 최근 자료를 통해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 이하로 떨어진 많은 선진국들의 위축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부문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제조업 지수에서 49.5를 기록한 반면,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각각 48.1, 46.6, 45.5와 44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의 4월 구매관리자지수(PMI) 자료는 일자리 창출 속도에서도 지난 5개월 동안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의 기업들은 증가하는 생산 잔량과 개선된 매출 전망에 대응하여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주요 수출처의 엄황이 억제되면서 지난 달 해외 신규 주문이 소폭 감소했지만, 내수 호조로 인해 제조업이 전반적인 호조를 보였다고 답했다.

제조업체들의 운영 비용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4월에도 여전히 상승했지만 투입물물가상승률은 계속 완화되어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떨어졌는데, S&P의 무어는 영업 마진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영 샤리아 인도네시아 은행

(Bank Syariah Indonesi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반자란 수르야 인드라스포모(Banjaran Surya Indrastomo)에 따르면 구매관리자지수의 개선은 이틀 피트리 이전의 가계 소비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잘 유지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올해 하반기 구매관리자지수가 53.1을 뚫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은 지난 4월 인플레이션이 11개월 만에 최저치인 4.33%로 떨어졌고, 지난 몇 달보다 계속 둔화됐다고 밝혔다.

반자란은 4월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제조 부문은 여전히

경기 침체 위험이 높은 국가의 수요 감소와 같은 몇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글로벌 금융 위험 증가가 인도네시아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제조업은 새로운 목표 시장, 특히 불황 위험이 낮은 국가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쁘르마따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수아 빠데데는 인도네시아의 4월 구매관리자지수가 상당히 놀랍고 예상을 초과했다며 이는 올해 2분기 초의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지표라고 말했다. 보통 긴 연휴가 있었던 4월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제조업체들의 활동이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다.

미래에셋 증권 수석 이코노

미스트인 툴리 아리아 비스누 브로포도 2일, 최근 구매관리자지수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놀라움”이라며, 인도네시아의 구매관리자지수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낙관했다.

한편, 구매관리자지수(PMI)와 유사한 매개 변수를 측정하는 산업부의 산업신뢰지수(Industry Confidence Index, IKI)는 확장 영역에 있으면서도 하락세를 보였다. 3월 51.87에서 4월 51.38로 0.49포인트 감소했다.

산업부 대변인인 페브리 헨드리 안토니 아리프(Febri Hendri Antoni Arif)는 이러한 추세가 계절적인 것이며 다음 달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월의 IKI 하락은 국가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몇몇 하위 부문의 위축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이상덕 대사 “인도네시아 금융서비스위원장과 금융협력 면담”

2일 마헨드라 시레가 위원장 면담... 2일 양국 원-루피아화 직거래 촉진 MOU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는 5월 2일 마헨드라 시레가(Mahendra Siregar) 인도네시아 금융서비스위원장(OJK chairman)을 면담하고 금융협력을 논의했다.

마헨드라 시레가 위원장은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UI)에서 학사, 펠버튼의 모나쉬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86년에 외무성에서 전문적인 경력을 시작했다. 주미 인도네시아 대사를 역임하고 외교부 차관직을 거

쳤다.

한편 한국은행은 2일 이창용 총재가 페리 와르지요(Perry Warjiyo)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와 양국 원-루피아화 직거래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두 나라는 경상-직접 투자 거래 과정에서 민간 은행이 원화-루피아화 직거래를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가 마헨드라 시레가 인도네시아 금융서비스위원장을 면담했다. 사진=주인도네시아 대사관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31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 +62 21 440 3926
F. +62 21 440 3944

sales@dongjung.net
bhjangjkt@gmail.com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한국 · 인도네시아, 양국간 교역 · 투자 '현지통화거래' 협약 추진

인니 중앙은행 총재 "내달 중으로 협약 이뤄질 것" 교역 확대 · 원화 가치 상승 기대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양국간 교역 · 투자에 현지 통화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에 양국간 교역 · 투자가 확대되는 동시에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 기대감이 나온다. 페리 와르지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24일 현지 기자들과 만나 "내달 중으로 한국 중앙은행과 현지 통화를 사용한 무역 · 투자 거래(Local Currency Transaction · LCT)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이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국가간 교역에서 달러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현재 일본과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4개 국가와 LCT 협약을 맺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동남아 국가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의 LCT 거래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와 일본 간 LCT 거래액은 올해 2월 기준 9억5700만 달러(약 1조2770억원) 규모로 지난해 월평균(3억5000만 달러 · 약 7670억원)을 3배가량 웃돌고 있다.

[THE GURU]

조코위 대통령, 투자 유치는 곧 일자리 창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5월 1일 노동절 기념 성명에서 "정부는 일자리 기회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투자 유치를 통해 실업률을 낮추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코위는 국민들이 노동자 복지 개선과 더 많은 일자리 기회뿐 아니라 노동절을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멘텀으로 만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사전고용 프로그램과 훈련 센터를 통해 인도네시아 노동력의 재교육과 기술 향상을 촉구했다.

얼마 전 투자부 보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328조 9천억 루피아를 유치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약 177조 루피아였다.

이번 투자 유치로 인도네시아인 384,892명을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도네시아인은 16만 5,797명이고, 나머지 21만 9,095명은 국내 투자자가 유



▲ 2023년 5월 1일 노동자들이 자카르타 모나스 지역에서 국제 노동절을 기념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치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바릴 라하달리아 투자부 장관은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에 오는 투자는 대부분 첨단 기술 분야이며 총 투자가 일자리 창출 수와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기초 금속, 금속 제품, 비기계 및 관련 장비 산업은 2023년 1분기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문이었으며, 주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이 부문에 대한 투자는 46조 7천억 루피아에 달했다. 각각 33조5천억 루피아와 22조6천억 루피아를 투자한 광업과 제약 산업도 기계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부의 분기 보고서에는 중소기업(MSME) 부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바릴 장관은 "정부는 민간 부문이 첨단 기술 산업일지라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사람들을 고용할 것을 항상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즉 모든 사람이 첨단 분야에서 일 할 수 없고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에서도 일해야 하므로 모든 곳에서 기술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사람들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인은 384,892명이지만 케이터링 및 물류 분야와 같은 간접 일자리 기회는 4-5배가 될 수 있다고 바릴 장관은 말했다. 국가개발계획(Bappenas) 통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실업률은 2022년 기준 5.86%이며, 정부는 2024년까지 실업률을 3.6%에서 4.3% 사이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카르타글로브/자카르타경제신문]

인쇄/출판 광개토
Kwanggae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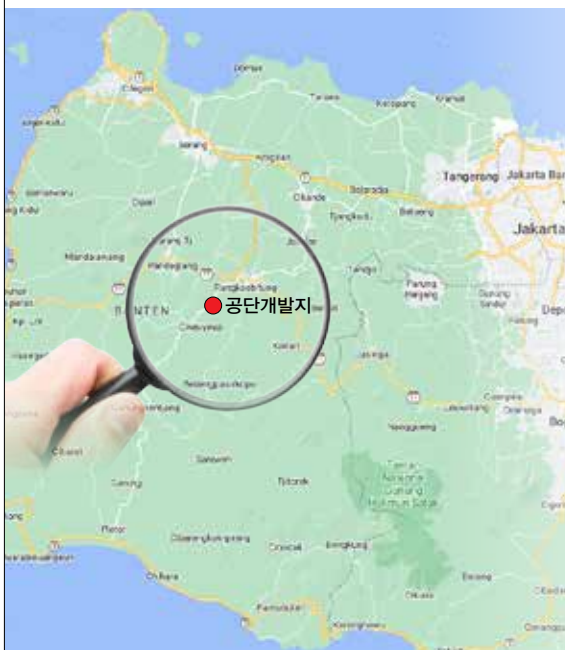
인쇄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Kawasan Industri Rangkas Bitung by PT. Muns Cipta Bangun

최적의 산업단지 분양!



왜 멀리서 찾지?

우리가 몰랐던 이곳! ... 공항, 항만과 땅그랑 도심 가까이 저렴한 인건비, 노동인력 풍부한 지역으로 100hr 규모로 조성합니다!

1. 위치 : Rangkas Bitung, Lebak, Banten
2. 면적 : 100 hr (1,000,000 M2)
3. 공단개발지 산업용지로 지정 완료.
4. Serang-Panimbang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이 용이함. Tol Gate에서 10분거리.
5. Kabupaten Lebak 인구수 : 2020년 조사기준 약 138만명
6. 최저임금 : 2023년 기준 Rp 2,944,665 으로 BANTEN주내 최저이며, 인구가 많아 노동집약적 산업에 적합함.
7. 분양가 : Rp 800,000/M²
 - 7.1 부가세, 취득세, 이전비용 별도
 - 7.2 공단내 도로, 배수로 및 부지평탄작업등 기본토목공사 완료기준.
8. 시행 및 시공사 : PT. Muns Cipta Bangun

출발지	거리	소요시간
Gerbang Tol Tangerang	85 Km	1H 10M
Air Port (CGK)	103 Km	1H 30M
SCBD Jakarta	108 Km	1H 40M
Tanjung Priok Port	121 Km	2H 30M

문의처 : 081190097773 (whatsapp)
kakaotalk ID : muns.id
Email : munsclub@muns.id

Grand Serpong Mall (Great Western Resort) Lt. UG No. 6,
Jl. MH. Thamrin KM. 2.7, Kebon Nanas, Kel. Panunggangan Utara,
Kec. Pinang, Kot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143
Tlp. 021-5541747 | E-mail. munsclub@muns.id, munsclub33@gmail.com
www.muns.id

인니 인플레이션 둔화...4월에 4.33%로 ↓

인도네시아 인플레이션이 두 달 연속 5% 미만을 유지하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완화됐다. 이는 정부가 올해 라마단 기간 동안 식품 공급과 유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소비자 물가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시사한다고 2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은 지난 2일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4월에 4.33%로 하락하여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이 전년 대비 4.97%에서 더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전에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통제하는 연료 가격의 인상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이끌어 2015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5.95%를 기록한 지난 해 9월 이후 줄곧 5%를 상회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마고 유위노 청장은 2일, “역사적으로 큰 종교 명절은 소비자 수준의 가격 변화뿐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0.18%에서 4월 0.33%로 빨라졌는데, 이는 단식일 수요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르바란 휴일로 이어지는 계절적 효과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작았다. 이는 3월과 4월에 주요 수확기가 열리며 라마단 수요 증가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농산물 추가 공급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마고 청장은 설명했다. 통계청은 대부분의 도시인들이 르바란 명절에 전통적인




▲동부 자카르타 재래시장(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가족 모임을 위해 방문하는 지역에서도 하락세가 반영되었으며, 이들 모두가 작년 르바란 시즌보다 낮은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마고는 이것은 낮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작년보다 훨씬 더 나은 정부의 대처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금리 정책의 사실상 근거가


된 근원 인플레이션은 4월 2.83%로 완화돼 2022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한 달 전 기록한 2.97%보다 하락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지수 계산에서 변동성이 큰 특정 식품 및 에너지 제품을 제외한다. 중앙은행은 현재 통화 정책 기조가 소비자물가지수 성장률의 하향세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고 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았다. 월례 통화정책회의 이후 중앙은행은 4월 18일 7일물 역레포금리를 5.75%로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작년 8월부터 누적 225 베이스 포인트를 올린 후 1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4월 물가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교통이었으며, 이 지출 범주의 소비자 물가가 11.96% 올랐다. 마고는 지난 9월에 발생한 휘발유 가격 인상과 르

바란 휴가 여행에 대한 수요 급증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항공 요금, 기차 요금, 그리고 기타 도시 간 교통수단이 운송 가격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르바란 보다 앞서 급등하는 식품 인플레이션은 앞서 언급한 공급 증가 덕분에 4월에는 잠잠했다. 조수아는 2일 “엘니뇨의 영향은 특히 쌀의 국내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정부가 이 현상을 어떻게 예상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충분한 식량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가격이 급등할 때 정부가 통제된 방식으로 추가적인 공급을 방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파인트리 재봉사



PT.ELBEKA S.T는 재봉사 전문 생산업체로 원사구매에서 연사, 염색, 검사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최고품질의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ELBEKA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축적된 노하우, 우수한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명	스펙	사용용도
나이론 본드재봉사 (Nylon Filament Bonded Thread)	100D/2,3 . 210 D/2,3 280 D/3 . 420 D/1,2 840 D/3,4	신발, 가방, 장갑 (골프, 야구, 오토바이용 등)
나이론 본드 발수재봉사 (Nylon Water Proof Bonded Thread)		
모카신 재봉사 (Braid Thread)	0,8mm, 1mm, 1,2mm, 1,5mm	신발 (운동화 및 캐주얼화)
폴리에스터 코어사 (Polyester Core Sewing Thread)	29S/2, 29S/3, 45S/2, 15S/2	수영복, 장갑, 자켓
나이론 스트레치 재봉사 (Nylon Stretch Sewing Thread)	70 D/2, 100 D/2	수영복, 니트, 자켓 등 의류용 침대, 쇼파, 장갑
스판 폴리 재봉사, 발수 재봉사 (Spun Polyester Sewing Thread)	60S/2, 60S/3, 40S/2, 40S/3 30S/3, 20S/3, 20S/4	
폴리에스테르 스트레치 재봉사 (Polyester Stretch Sewing Thread)	75 D/1, 150 D/1,2,3 200 D/1, 300 D/2	장갑, 의류, 침대, 쇼파용
재전사 및 도전사 (Anti-Static, Conductivity Sewing Thread)		안전화 및 등산화
방염, 난연 재봉사 (Anti Flammable Sewing Thread)		
야광 재봉사 및 야광 자수사 (Luminous Thread)		

PT ELBEKA SEWING THREAD
Jl. Industri Keroncong No. 20 RT 004/RW 04,
Kel. Keroncong Kec. Jatiuwung, Kota Tangerang Indonesia

Telp : (021)5931-0445,0447 Fax : (021)5931-0446 E-mail : elbekast@ymail.com
한국인 연락처 HP : 0812-8888-0899 (이봉규 사장), 0811-1830-046 (Aan Suhanah)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 용 상 : 0815 1902 4176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하루 2,000명 넘어



▲ 마스크를 쓴 귀성객들이 시외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유튜브 캡처]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해 하루에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고, 30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정부는 28일 정오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67명이 발생해, 2020년 3월 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총확진자수가 6,771,072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일일 사망자는 전날보다 20명 많은 37명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자카르타에서 신규 확진자 656명이 발생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가 발생했다. 다음으로 서부자바에서 405명, 동부자바에서 349명, 중부자바에서 235명, 반뜰에서 139명, 발리에서 22명 등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최근 신규 확진자 급증은 이슬람 명절인 이돌피트리에 고향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이돌피트리였던 23일에 384명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카르타에서 신규 확진자가 일일 1,000명을 넘어선 것은 2022년 12월 22일 이후 4개월 만이다.

보건부는 현재 사망률과 병상

점유율은 여전히 세계보건기구 기준보다 낮다며,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모하맛 사흐릴 보건부 대변인은 전체적으로 당황할 필요는 없지만 노약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여전히 대유행 상태로 새로운 변종의 출현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정부가 오미크론의 변종인 신형 아크투러스(XBB.1.16)를 경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을 위해 보건당국은 부스터 백신 도입하고 환자들에게 추가 접종과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또한 증세가 있거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자가격리를 꼭 하라고 촉구했다.

그리피스대학교 소속 전염병 전문가가 다키 부디만은 이돌피트리 휴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과 아크투러스 변종으로 인해 앞으로 2~3주간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증세는 팬데믹 초기의 2년만큼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김재훈의 세무상식

미수 채권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

회수 불능의 경우에는 대손 처리를 하지만 세법상 손금산입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부 장관령 PMK 105/PMK.03/2009 호에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1조

재무부 장관의 이 규정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납세자는 납세자, 납세자 및 세금 납부자를 포함하여 세법 및 규정의 조항에 따라 납세의무와 권리를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이다.

2.명백히 회수불능인 채권은 납세자가 최대 또는 최종 회수 노력을 했음에도 명백히 회수할 수 없는 사업분야에 따른 정상적인 비즈니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이야 한다.

3.일반 또는 특별 간행물은 다음을 포함하는 간행물이다

- a. 공개 출판은 전국 규모의 신문/잡지 또는 기타 일반 인쇄 대중 매체의 출판에 대한 공지 사항을 게시하는 것 또는
- b.특별발행은 국영은행연합회(HIMBARA)/국가민간은행연합회(PERBANAS) 발행에 관한 공지사항 및/또는 인도네시아 은행의 특별발행/공지사항을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1.은행, 금융 기관, 산업, 무역 및 기타 서비스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명백히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

2. 제1항에서 명백히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납세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1.제2조에 따라 명백히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a. 명백히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해당 연도에 채무자의 소득으로 계상된 경우

b. 납세자는 분명히 징수할 수 없는 미수금 목록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c.명백히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지방법원 또는 국고채를 취급하는 정부 기관에 회수를 위해 제출되었거나,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채권 상각/채무 탕감에 관한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명백히 회수할 수 없거나, 일반 또는 특별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채무자가 일정 금액의 채무에 대해 해당 채무를 탕감 받았다는 확인이 있는 경우.

제4조

1. 제3조 1 b항에 따라 세무국에 제출되는 명백히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목록에는 이름, 납세자 식별 번호, 주소 및 금액의 형태로 채무자의 신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2. 3조 1항 c에 언급된 조항의 이행은 다음을 첨부하여 수행된다.

- a.지방 법원 또는 주 채권을 처리하는 정부 기관에 추심 사건을 제출했다는 증거 사본; 또는
- b.공증인이 승인한 미지급금/지급금 상각에 관한 서면 동의서 사본; 또는
- c.일반 간행물 또는 특별 간행물의 출판 증명서 사본; 또는
- d.채무자의 승인을 받은 일정 금액의 채권 상각에 대해 채권자가 승인한 채무자의 상각 확



김재훈 대표

인서가 포함된 서신

3. 미수금 목록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는 연차신고서(SPT) 제출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제5조

미성년 채무자 또는 제3조에 언급된 기타 미성년 채무자가 명백히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이름, 납세자 식별 번호, 주소 및 미수금 금액의 형태로 채무자의 신원을 포함하는 지명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제6조

재무부 장관의 이 규정으로 재무부 장관령 번호 130/KMK.04/1998 은 취소하고 무효로 선언한다.

제7조

이 재무부장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S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i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코참 국제세무관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일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TEL : 021 522 2739
e-mail: kimjhoon@bngconsulting.co.kr

PT. TOP ABADI

All in one packaging service with best price

20년 동안 인도네시아내 최고의 품질과 정확한 납품기일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최저가격으로 고객사에 도움을 드립니다.

카톤박스

단플라박스

대차 및 랙

플라스틱제품류

종이제품류 속대지, 종이각대, 종이튜브 등등

- 카톤박스 (미니, 대형 사이즈 가능)
- 단플라 박스
- 커스텀 제작 대차 및 랙,
- 원단 릴리스 거치대 및 봉제 테이블
- 팔레트(철재, 플라스틱, 종이)
- 인쇄박스 및 내부속대지

모든 아이템 고객사 요청 사항에 맞춰 제작 가능합니다.

Bekasi Int'l Industri Estate (BIIE)
Kawasan Industri Hyundai Blok C2 No.1A, Ds. Sukaresmi, Cikarang Selatan Bekasi, Jawa Barat Indonesia 17550
마케팅 팀장 홍의준 0811 1129 038 마케팅 담당 Ibu Ratna 0878 7720 8572 Email : top_abadi@yahoo.co.id, rielwooha@gmail.com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채인숙, '여름 가고 여름' 시집 발간



▲채인숙 시인

책 소개에서 “살아가는 땅은 달라졌지만 ‘시’ 라는 땅에서는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으니, 그의 첫 시집은 그의 온 생애와 함께한 시에 대한 고백이자 “8000일을 한 계절 속에서” 살고 있는 열대의 시간 속에 남겨진 ‘병의 흔적’ 이라고 소개했다.

허연 시인은 추천의 말에서 “채인숙의 시를 읽으면서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었다. 이별의 술상에서 불렀던 노래처럼, 생을 관통해 그리워했던 사람에게 끝내 못 잡고 쓴 편지처럼. 그러나 불태워 버린 편지처럼. 채인숙의 시에는 재가 되어 버린 서사가 있다. 현대시가 잊고 있었던 재의 서사가 열대의 나라에서 날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고통 속에서 부른 노래만이 고통을 담을 수 있는 법. 미분되어 날아가 버리는 시들이 득세한 세상에 쌓이고 쌓여서 도달한 슬픔을 읽는 아련한 시간이 있었다” 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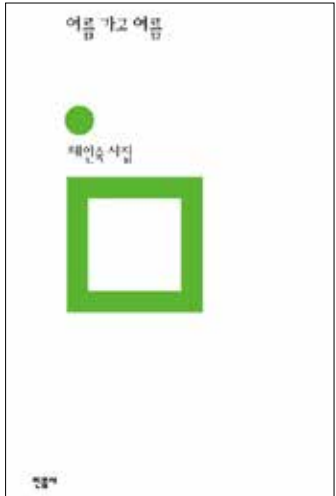
“시집에는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는 왕복운동에 관한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밤이 오고 밤이 갔다” 거나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갔다” 는 식, 또는 “파도가 가고 파도가 온다” 와 같은 왕복 운동에는 떠나는 행위와 돌아오는 행위의 반복이 각인되어 있다. 그리움은 이토록 오고 가는 동사의 모습을 취한다. 시는 병의 흔

적이기도 하지만 그리움을 달래는 치유의 기록이기도 하다. 속절없이 여름이 반복되는 계절과 무관하게 내면은 멀경거리며 오고갈 때 “습기의 무기” 가 무

거워지면 마음엔 스콜처럼 시가 쏟아졌다” 고 28일 문학뉴스가 보도했다.

채인숙 시인은 지난 2015년 오장환 신인문학상에 「1945, 그

리운 바타비아」 외 5편의 시가 당선되며 활동을 시작했다. 먼 나라에 살며 다음 생애는 고향을 떠나지도, 사투리를 고치지도 않겠다고 다짐하는 시인은 “거짓말처럼 사라지지 않는” 여름을, 한 번도 표정을 바꾼 적이 없는 여름을 “척척산중의 마음” 으로 건넌다. [자카르타경제신문]



▲채인숙 시인의 시집 '여름 가고 여름' 표지 (민음사 출판)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채인숙 시인의 '여름 가고 여름' 시집이 민음사에서 출간됐다. 여름 가고 여름 오는 열대의 나라에서 다음 생애를 향해 보낸 그리움의 편지들이 모여 시가 됐다. 1999년 인도네시아로 이주해 이국의 땅에서 사는 동안 채인숙 시인의 마음을 달래 준 것은 시에 대한 추억과 시를 향한 열망이었다.

가루다항공, 서울-자카르타 노선 운항 늘려 기존 주2회에서 5월 주3회, 9월 주4회로 증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속카운터: G31 ~ G37

노선	편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운항일	적용일
인천-자카르타	GA879	10.35	15.55	수/토	- 5월6일 까지
		10.35	15.35	화/수/토	5월 8일 - 9월 6일
자카르타-인천	GA878	23.25	08.30(+1)	화/금	- 5월6일 까지
				월/화/금	5월 8일 - 9월 6일
		23.20	08.30(+1)	월/화/목/금	9월 7일 부터
인천-발리	GA871	11.25	17.20	일/월	3월 26일 부터
발리-인천	GA870	01.05	09.15	일/월	

▲인천-자카르타,발리 운항 안내 [가루다항공 웹사이트]

한편 Garuda항공은 승객들의 편의를 위한 혜택을 제공한다. Garuda항공은 3월30일부터 자카르타 및 발리 공항 출입국시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 승객을 위한 전용 라인을 별도 운영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가루다항공 이르판 세티아푸트라 CEO는 “이번 인천-자카르타 노선의 증편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Garuda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주)정석 테크 아바디
PT. JEONGSUK TECH ABADI
Contractor, Engineering, Electrical & Supplier

전기공사

30

년의 시간을
한인기업과 함께 해 왔습니다!



Jl. Lingkar CBD Palem Semi Ruko Kav. No.33-35, Kel. Panunggangan Barat
Kec. Cibodas, Kota Tangerang, Banten Zip Code 15139
Tel. 021 39720121 Email. baeksy68@hanmail.net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만수산 드렁침

4월 중순부터 등나무 꽃이 너무 곱다. 이때 아니면 언제 귀히 보일까? 보라색 레이스에 향이 풀풀 나는 등나무 꽃은 늘어진 모습이라 바람이 불면 더 아름답다. 등나무는 콩과식물이라 척박하고 황폐한 땅에서도 잘 자라서 산사태를 방지하게 심기도 한다. 꽃도 풍성하게 피어서 꿀을 따는 밀원식물이다. 오래전 보릿고개에는 어린잎이나 꽃을 따 먹기도 하였다. 주전버리라고 없던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이야기다. 적절한 굵기의 넝쿨은 바구니를 만드는데 쓰기도 했지만 등가구를 만드는 목재는 아니다. 요즈음은 울타리나 그늘을 만들어 주는 용도가 대부분이다.

참은 이보다 늦게 6~8월에 꽃이 핀다. 참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식물이다. 부드러운 잎은 사람이 먹고 잎과 덩굴은 가축의 사료로 쓴다. 길게 자란 줄기는 가을에 걷어 잘 사려두었다가 끈으로 쓴다. 삶거나 물에 불리면 부드러워져서 빗자루를 만들거나 울타리를 묶을 때 썼다. 뿌리는 캐어 침즙을 내어 마시거나 건조시켜 먹거리로 쓰는 갈분(葛粉)이다. 약으로도 쓰는 갈근탕의 재료다. 침꽃을 따서 술을 담

가 먹으면 향기롭다. 침도 아카시아처럼 밀원 식물이다. 침꽃은 아카시아 꿀과 달리 씹살한 맛이 강한데 귀하여 조금 더 비싸게 팔린다. 뿌리가 땅속 깊이 파고들어가니 산사태 방지에 좋다.

참이나 등나무가 다른 나무를 감아 오르면 그 나무는 벌을 받지 못하여 위험해 진다. 참, 나팔꽃, 메꽃, 새삼 등은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나 인동, 더덕, 환삼덩굴 등은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그게 본성이니 바뀌는 일은 없다. 서로 감는 방향이 다르듯 얽히고 설킨 것을 갈등(葛藤; conflict)이라 하는데 참(갈; 葛)과 등(등; 藤)나무에서 온 말이다.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니 갈등이 없을 수가 있겠는가마는 너무 심하여 대립하면 감정으로 번지기 쉽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침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 년까지 누리리” 하여가(何如歌)라는 시조다. 왕씨의 고려를 이씨의 나라로 바꾸고자 역성혁명을 꿈꾸며 세력을 키우던 이성계가 벽란도에서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드러누웠을 때 고려의 충신 정몽주는 병문안을 가려한

다. 병문안을 핑계로 이성계를 제거하려는 정몽주의 눈치를 챈 아들, 이방원이 이성계를 개경으로 모신다. 정몽주를 포섭하라는 이성계의 지시를 받은 이방원이 병문안 온 정몽주에게 던진 노래가 바로 이 시조였다.

정몽주는 단심가(丹心歌)로 응수한다. 此身死了死了(차신사료사료) 이 몸이 죽고 죽어/ 一百番更死了(일백번갱사료) 일백 번 고쳐 죽어/ 白骨爲塵土 (백골위진토) 백골이 진토 되어/ 魂魄有也無 (혼백유야무) 넋이라도 있고 없고/ 向主一片丹心(향주일편단심)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寧有改理與之(영유개리여지) 가실 줄이 있으랴/ 이 시조 한 편으로 회유를 포기한 이방원은 선죽교에서 철퇴를 내리쳤다.

정몽주와 이성계의 갈등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고려는 요동 문제를 놓고 명과 외교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백성들은 전란에 시달리고 땅과 사병(私兵)을 가진(토지경병) 권세자들에게 수탈당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구세력을 대표하는 최영 장군과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의 지지를 받는 이성계는 향후의 국정방향을 놓고 미묘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었다. 대부분, 개혁세력이 민심의 지지를 받는다.

1388년(우왕 14년)에 우왕의 명을 받아 요동을 공격하기 위해 진군했던 이성계 등이 압록강 가운데에 있는 위화도에서 화군하여 우왕과 최영장군을 제거하고 고려의 실권을 장악한 사건이 있었

다. 바로 “위화도화군”이다. 이성계는 온 나라의 군사들이 원정에 나서면 왜적이 허점을 노려 침입할 것을 우려하였다. 사실 압록강 물이 불어 군사가 강을 건너가는 것조차도 문제이긴 했다. 이성계는 꼭 요동을 공격하고자 한다면 추수가 끝난 가을철에 군사를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곧 겨울이 되면 추워서 철수해야 한다.

14세기 말 당시 고려는, 안으로는 기존의 귀족 세력인 권문세족과 그에 반발하는 신진 사대부들이 대립하여 정치가 혼란하였고, 밖으로는 흥건적과 왜구의 약탈을 받았고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이어지는 원·명 교체기의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무렵 고려의 무신인 이성계는 왜구, 흥건적, 몽골족, 여진족의 침입을 여러 차례 물리치고 명성을 얻어 중앙 정계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동안 이성계는 개혁의 주인공으로, 새로운 인물로 지지 받지만 명나라는 소용돌이속의 고려와 신흥국인 조선을 지배하게 된다. 고려는 통일신라 말기에 송악(개성) 지방의 호족인 왕건이 918년에 건국하여, 이듬해 개경이라 이름을 고치고 수도로 삼았다. 그 뒤, 935년에 신라, 936년에 후백제를 복속하였



조기조 박사

다. 그러다가 1392년에 막을 내린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것이다. 삼국시대는 제쳐두고라도 요나라인 거란족, 금나라인 여진족, 몽골족의 원나라에서 명나라, 청나라, 중공으로 이어진 그 대륙 세력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우리를 무시하고 위협한다. 어떻게 하면 이 고리를 끊을까? 일치단결하여 힘을 모아야 하는데 우리의 내분과 갈등은 여전히다. 아니 더 심하지 않은가? 갈등은 마침내 제 발등을 찍는다.

조기조(曹基祚 Ky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인니 보건부, 코로나-19 비상 사태 해제 위한 전환 준비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상태를 3년 4개월 만에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이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인도네시아는 이전에 WHO와 협의하여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의 전

환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보건부 대변인 모함마드 샤릴에 따르면, “WHO가 PHI-EC 상태 종료를 발표하기 얼마 전 인도네시아를 위해 전염병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WHO 사무총장 및 제네바와 자카르타에 있는 WHO 팀과 협의했다” 며 WHO는 인도

네시아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의 전환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건부 부디 구나 사디킨 장관이 WHO 사무총장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에게 인도네시아가 국가 코로나-19 비상상태를 종료가 준비가 되었다고 보고했다고 7

일 리부판6이 보도했다. 정부는 WHO가 국가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한 2023~2025년 코로나19 대비 및 대응 전략에 따라 팬데믹 상태를 해제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는 코

로나19의 확산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7일자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1,295명이었으며, 지난 며칠 일일 확진자는 평균 2천 명 안팎으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팬데믹 비상사태가 해제되었지만 코로나19 장기 대응을 위한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대비와 경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카르타경제신문]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한국-인도네시아, 미래 경제협력의 기회와 도전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 한인뉴스 논설위원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년을 맞은 올해 1월부터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발효되면서 양국 경제협력의 5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0년 11월 고용창출법(일명 옴니버스법)을 제정해 격진된 노동시장의 개혁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외국 투자자에게 문호를 활짝 열었다. 한국-인도네시아(한-인니) CEPA는 양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무역협정'인 FTA와 비슷한 협정이다. 하지만 CEPA는 상품과 서비스 교역, 투자 등 무역 확대에 무게를 둔 FTA에 비해 정부 간 경제 협력은 물론 인적·문화적 교류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 경제협정이다. CEPA는 주로 선진국과의 경제협력을 원하는 개발도상국이 선호하는 방식인만큼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협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글로벌 경제가 둔화하며 침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제조업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억 8천만 명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가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천연자원, 거대한 내수 시장을 앞세워 제조업에서 중국의 일부분을 맡게 될 대체지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해외 투자가 금융보다는 제조업 분야 투자 비중이 높고 투자 여건도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도네시아 투자부에 따르면 2022년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약 43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이며,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이 기간 제조업 분야 투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자동차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인 니켈을 활용한 다운스트림(downstream, 하방산업) 산업의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자재 수출 대신에 다운스트림 산업을 개발하는 데 집중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운스트

림 산업은 천연자원을 가공·판매해 부가가치를 올리는 산업 부문을 뜻한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18년 6억 8천만 달러에 그쳤던 한국의 인도네시아 투자는 2021년 1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28일 자카르타에서 코트라(KOTRA) 주관으로 열린 '한-인니 미래 신산업 비즈니스 플라자'에 따르면 한국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특별한 것은 전기차나 배터리, 화이트바이오(White Bio) 등 신산업이나 제철소, 석유화학 단지 등 대규모 장치산업에 투자하



2018년 4월 조코위 정부가 처음 공개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일본,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들도 글로벌 생산기지로 자리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정책에 기반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현재 세계 16위 경제 규모를 2030년까지 1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핵심 전략 분야로 첫째, 제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순수출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를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

Closer Friendship, Stronger Partnership

▲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엠블럼

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 미래 신산업 협력 방안을 살펴보는 세미나와 함께 전기차, 에너지, 의료기기, 디지털 콘텐츠 분야 등에서 국내 혁신 기술 기업 48개 사의 쇼케이스도 함께 진행됐다. 또 한국전력공사와 협업체 인도네시아 에너지부와 인도네시아 전력 공사를 대상으로 국내 탄소 중립 분야 혁신 기술 기업들의 기업설명(IR)회도 열렸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경제협력에서 윈윈(win-win)하려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제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 실현을 위한 로드맵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Making Indonesia 4.0)을 진행하면서, 한국 등 제조업 선진국을 통한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은 지난

다. 특히 순수출 중 제조업의 기여도를 2016년 30%에서 2030년에는 65%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게 목표다. 둘째, 로보틱스(Robotics),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인더스트리 4.0 기술을 접목해 단위비용당 노동생산성을 2030년까지 2016년의 2배로 높인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인더스트리 4.0 육성과 달리 로보틱스·바이오 등 미래산업보다는 전통 제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대국으로 경제 활동 가능한 젊은 인력이 풍부한 생산기지가 소비시장이며, 자원이 풍부한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 부족 등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전방과 후방산업 연계 가치사슬이 취약하고 정부 자원 및 혁신 주도 역량 부족, 숙련 노동력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선결 과제로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와 부품의 국내 대체를 위한 산업생태계를 육성 △5대 육성산업(식음료, 섬유, 자동차, 전자, 화학)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산업단지 간 연결성 강화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 △빨라빠링(Palapa Ring)을 통해 대규모 통신망 인프라 구축 △Gojek, Tokopedia, Traveloka 등 자국 유니콘 스타트업들의 성공을 발판 삼아 제조업에도 'IT 혁신' △한국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선도 제조업체 유치에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의 5대 육성산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늘어나는 등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포스코, LG 에너지솔루션, 롯데케미칼 등 대규모 투자를 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지난 3월 15일부터 닷새 동안 원팀 코리아를 이끌고 인도네시아 출장을 마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수주를 통한 1회성 수익 창출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자체의 인적 역량 구축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손잡고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길이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에 방문한 원팀코리아는 민관 '원팀' 고위급 외교와 한-인니 뉴시티(New City) 협력포럼 개최, 외국 정부인사 최초 신수도 개발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인프라 협력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원팀코리아는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책부 장

관, 신수도청 장관, 교통부 장관, 자카르타 주지사, 아세안 사무총장, 투자부 고위 관계자 등과 만나 건설,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IT, 문화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바스키 하디물요노(Basuki Hadimuljono) 공공사업주책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주택, 도로, 수자원 등 주요 기반 인프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 및 노하우를 기반으로 아세안 대상 기술직업 교육기관 설립 △공공개발원조(ODA) 지원 △스마트 빌딩 건설을 위한 전문가 파견 등 인프라 협력을 논의했다. 밤방 수산토노(Bambang Susantono) 신수도청 장관과는 약 40조원 규모의 신수도 건설 사업에 참여 의지가 있는 스마트 시티·스마트 건설·모빌리티 등 우리 기업들을 한 곳 한 곳 직접 소개하며 관심을 당부했다. 부디 까르야 수마디(Budi Karya Sumadi) 교통부 장관과는 △자카르타 MRT(중전철) △자카르타 LRT(경전철) 등 인도네시아 도시철도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당부했고,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국 지방 공항을 포함한 노선 다변화 및 운항 횟수 증대를 논의했다.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돼 무역 확대는 물론 중소기업 육성과 기술이전, 인력 양성, 디지털 전환 등에서 미래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와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파트너가 돼 장점을 결합하면 양국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다. 평균 연령 29세이며 세계 4위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생산시장이자,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는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한류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또 한번 상승했다. CEPA를 통해 양국 관계가 현재의 황금기를 넘어 공동번영을 향한 미래 동반자로의 관계로 새롭게 도약해 나갈 것이며, 한국-인도네시아 50년의 우정을 넘어 100년지기 미래 동반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끝-

톱슨 목금형 (톱슨발형) 아크릴 커팅, 밴딩가공

- 생산성 향상
- 짧은제작기간
- 정밀성
- 품질 향상
-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1987busan@naver.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슨금형, 특수 칼금형

국내 대표 아웃도어 기업 4개사(영원아웃도어, 케이투코리아, 비와이엔블랙야크, 네파)의 재무건전성이 좋아졌다. 글로벌 경기 침체 가운데서도 아웃도어 주요 기업들은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4개 기업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재고자산은 모두 늘었다. 야외를 찾는 아웃도어 인구가 늘어나면서 제품 생산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고자산회전율은 노스페이스가 6.9회로 가장 높다.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상품을 내놓기 무섭게 팔린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이후 재고자산회전율이 높아진 것이다. 네파(3.2회), 케이투(2.7회), 블랙야크(2.7회)순으로 집계됐다. 재고자산회전율이란 연간 매출액을 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재고자산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판매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회전율이 높을수록 재고가 줄고 재고자산이 빠르게 매출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액에 2021년과 2022년 재고자산 평균을 나눴다.

노스페이스를 전개하는 영원아웃도어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재고자산이 1년 만에 전년 대비 77.0%(600억 이상) 늘어난 1392억원으로 집계됐다. 재고 자산 회전율은 2019년 5.2회에서 작년 6.9회로 늘었

아웃도어 4사, 작년 실적과 재고 건전성 ‘굿’

매출 · 영업이익 · 순이익 성장해 수익 강화
재고회전율 평균 3.9회...노스페이스 6.9회

아웃도어 4사 작년 재고자산 추이

(단위: 억원)

기업	매출액	재고자산	재고자산 증감률	재고자산 평균	회전율
영원아웃도어	7640	1392	77.0%	1089	6.9회
케이투코리아	4246	1294	12.6%	1559	2.7회
비와이엔블랙야크	3770	1510	17.0%	1400	2.7회
네파	3273	1037	2.7%	1023	3.2회



다. 작년 재고 자산 비중은 전체 매출의 18.2%를 차지했다.

작년 영원아웃도어 매출은 40.3% 급등한 764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825억원으로 37.1% 성장했다. 영업이익률은 23.9% 이른다. 당기순이익도 36.0% 급등했

다. 인플레이션 여파로 원자재 구매 비용은 급증했다. 지난해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은 2640억원으로 전년보다 86.1% 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영원아웃도어는 포인트에 해당하는 고객충성제도는 전년보다 16.7% 늘어난 16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포인트 지출은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투코리아는 작년 매출이 4246원으로 전년 대비 5.6% 늘었다. 영업이익(732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12.3%, 26.7% 상승했다. 작년 재고 자산은 1295억원으로 12.6% 증가했다. 매출에서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0.5%다. 회전율은 2019년 2.0회에서 2.7회로 나타났다. 포인트 적립과 마일리지 제도 등과 관련해 예상되는 판촉충당부채는 전년 대비 2.9% 감소한 8.7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아웃도어 기

업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상 판매에 집중하고 적정량 생산에 치중한 결과 재고자산회전율이 3회~4회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와이엔블랙야크는 작년 매출은 전년 대비 12.0% 오른 377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77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569.4%, 96.5% 급등했다. 재고 자산은 15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0% 증가했다. 재고 자산회전율은 2019년 1.7회에서 작년 2.7회로 늘었다. 마일리지충당부채는 4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4.2% 늘었다.

네파는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6.0% 오른 327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264억)은 49.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4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재고자산은 전년 대비 2.7% 늘어난 1037억원을 기록했다. 회전율은 2019년 2.7회에서 작년 3.2회로 높아졌다. 네파는 작년부터 아웃도어 시장 변화에 발맞춰 리브랜딩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판매
임대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소형 5kVA ~ 220kVA

중형 250kVA ~ 700kVA

대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형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고객문의 박 찬 Hp : 0812 9512 8990
현지인 Hp : 0857 7752 7542
Hp : 0812 9012 2019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0 No. 90,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 pusat_BGT@yahoo.com



[주요 브랜드 2023 광고 촬영 스토리 (15)] 당신의 옷장을 채울 옷은?



아웃도어 프로덕츠, 인플루언서들과 함께한 'FOR [REST] CAMP'
 어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아웃도어 프로덕츠'는 'FOR [REST] CAMP' 캠페인을 공개했다. 유튜버 겸 스케이트 롱보더 '고효주', 셰프 '박대현', 퍼포먼스 아티스트이자 댄서 '아이반', 그래픽 디자이너 겸 모델 '강예나', 작가 '최형준'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인물들로 그들만의 라이프를 아웃도어 프로덕츠만의 스타일로 제안했다.



갯, 이윤지와 라니, 소울이 함께한 '모던블룸' 컬렉션
 갯 배우 '이윤지'와 사랑스러운 두 딸 '라니, 소울'이 함께한 싱그러움 봄 화보를 공개했다. 화보 속 이윤지와 라니, 소울은 봄 내음 물씬 느껴지는 싱그러움 꽃을 배경으로 러블리한 가족 화보를 완성했다. 이윤지와 라니, 소울이 착용한 제품은 '모던블룸(modern bloom)' 컬렉션으로 밝고 화사한 컬러와 큼직한 프린트가 특징이다.

몽클레르 컬렉션, 마운틴 DNA가 맞이한 여름 시즌
 몽클레르가 더운 날씨에 적합한 디자인과 브랜드의 특별한 아이덴티티가 녹아든 상징적인 제품들을 통해 일 년 내내 입을 수 있는 컬렉션 런칭을 기념한 글로벌 여름 캠페인을 선보인다. 1년 365일 동안의 보호와 기능을 약속하며 따뜻함을 나누는 것이 브랜드의 핵심이다. 자연스럽게 여름으로 넘어가는 흐름의 기반을 다진다.



조셉앤스테이시, 신예은으로 물든 하와이 러블리 화보
 조셉앤스테이시가 신예은과 함께 미국 하와이에서 특유의 매력적인 분위기를 담은 데일리 백 화보를 선보였다. 신예은은 화이트 원피스에 조셉앤스테이시 뉴 니트백 시리즈 'City Travelogue'에서 처음 선보이는 럭키 플리츠 오피시티 버킷백을 착용했다.

월간 KOGAZI 광고를 제안합니다.

월간 봉제신문 KOGAZI는 봉제 관련업체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 1, 개요** 주요대상 : 봉제관련 기업 및 자재, 장비,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봉제신문 KOGAZI(월간)
 1) KOGAZI는 봉제협회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3002 9090/91 0821 1122 8827 (Mr. Kang) 이메일 : khong3000@gmail.com

 <p>NEXTIN LED LIGHTING ELECTRIC MATERIAL</p>	<p>Jakarta Office Plaza Kenari Mas Lt.4 JI Kramat Raya No.101, RW. 01 Paseban, Senen, Jakarta Pusat Telp : +6221-3104414</p> <p>Cikarang Warehouse JI Industri Utara 4 Blok SS6b Kaw, Industri Jababeka Cikarang, Ds Mekar Mukti, Cikarang Utara Contac Person 0815-1902-4272</p>	 <p>MRO GLODOK SAFETY/PACKING/SPARE PARTS/ TOOLS/SAFETY/EQUIP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nufacturing Assy Cikarang Trading / Import Korea & China Small Qty Can Be Accep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livery Onsite From Glodok Alternative / optional brand or technical conditions
<p>LED Highbay 100W/150W</p>  <p>Price 150W Rp 1.400.000 Waterproof Class IP 65 Power factor : 0,95 CCT : 6500k</p>		<p>PACKING ITEMS : Silicagel, Wrapping, PE Bag, Opp Tape, Strapping Band</p> 
<p>LED TUBE T8 18W / 24W</p>  <p>Price 18W Rp 60.000 Lumen : 2100 Lm CCT : 6500K Input Power : 1 Sisi / 2 Sisi</p>		<p>STEEL ITEMS : Alumunium profile, Belt, Reparation Parts</p> 
<p>LED STREETLIGHT - FLOODLIGHT - DOWNLIGHT - FLATLIGHT</p> 		<p>TOLLS & CONSUMABLE ITEMS : Hand Tools, WD 40</p> 
<p>ELECTRIC ITEMS</p>		<p>SAFETY/HSE ITEMS</p>
		
		<p>FACTORY EQUIPMENT AND SPARE PARTS</p> 

패션그룹형지, 에너지 절감의 쿨패션으로 K패션 저력 과시

‘쿨코리아 패션쇼’ 70여벌 형지 브랜드 총출동



패션그룹형지(회장 최병오)가 지난 20일 오후 3시 인천 송도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 형지타워에서 ‘쿨 코리아 패션쇼’를 개최했다. 쿨코리아 패션쇼에서는 까스텔바작, 크로커다일레이디, 샤프렌, 올리비아하슬러, 본 매그넘, 예작, 에스콰이아 등 패션그룹형지의 주력 브랜드의 70여벌 의류를 선보였다. 이날 런웨이에서는 조명으로 꽃을 표현했고 쿨코리아패션쇼 캠페인을 통해 재생돼 가는 환경을 시각화했다. 패션그룹형지의 대표 여성복 브랜드 ‘크로커다일레이디’는 친환경 냉감소재에 한글과 울산 반구대 암각화 문양을 입혀 자연친화적이고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골프웨어 ‘까스텔바작’은 무더운 여름철 쾌적한 야외활동을 위해 향균, 향취, 흡한, 속건의 고기능성 데어 케어 소재 골프웨어를, 교복 브랜드 ‘엘리트’는 자주 입어도 형태 안정성이 좋은 소재에 통기성이 우

수한 쿨패치 등판 디자인의 교복을 선보였다. 쿨코리아 패션은 리사이클 소재와 냉감 소재를 사용한 옷을 선



보이며 사무실에서나 간편복으로 입고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서자는 취지다. 패션그룹형지는 쿨 코리아 캠페

인으로 소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근무복 보급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세계로 수출하는 산업용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섬유 / 목재 / 종이 / 석탄

노통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1T/H~15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 섬유, 봉재, 신발, 기타 산업용 보일러
• 보일러 Maintenance(세관작업, 보수관리, 청관제)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Tel : 021.5980.222 / 5982.666
한상운 Hp : 0822 9999 1447 Fax : 021.5984.666
Ruko Tatac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938 0006
Jl. Setrekan-Pentol, Troso RT 007 / RW 010,
Kec. Pecangaan Kab. Jepara, Jawa Tengah, 59462.

PT. YUSUNG JAYA ABADI

PT. BOSUNG INDONESIA

한인기업과 30년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차세대 리딩기업으로
한인기업과 함께
성장 할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www.bosung.co.id



종이 골판지 생산 / 카톤박스 / 포장용 박스 / 종이 쇼핑백
CORRUGATED SHEET /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 INNER BOX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 Pasar Kemis Tangerang –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 (021) 5935 1001 (hunting)
Fax : (021) 5935-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한세엠케이(각자대표 김동녕·김지원·임동환)의 유아동복 브랜드 '모이몰른'은 올해 글로벌 K-유아동복 브랜드 대표 주자로 입지를 다지며 해외 진출 강화에 나선다. 글로벌 시장에서 작년까지 가파른 성장을 이어 온 만큼 올해 일본에서 연 매출 1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모이몰른은 현재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미국 등에서 'K-유아동복' 대표 브랜드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일본 시장에서는 3년 만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매출이 2020년 런칭 첫해 4억원 규모에서 작년 74억원까지 늘었다. 20배 가까이 성장한 것이다. 라라포트 도쿄베이, 그랑트리 무사시코스기, 니시노미야 가덴즈, 루쿠아 오사카 등 15개 주요 거점 매장과 자사몰, 조조타운, 라쿠텐 패션 등 온오프라인에서 올린 성과다. 일본 모이몰른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 수는 오픈 8개월 만에 1만명

모이몰른, 세계에서 찾는 K유아동복 돌풍 잇는다

글로벌 영토 확장 가속...일본서 올해 매출 100억 목표



▲모이몰른은 일본 시장을 겨냥해 올해 100억원 매출 목표를 세웠다. 사진은 라라포트 타치카와 매장 전경.

을 돌파했고 현재 약 4만6000여명에 이른다.

올해 일본에서는 연 매출 100억 달성을 목표로 유통망 확장에 집중한다. 지난 4월 말에는 패밀리 소비층이 밀집하는 도쿄 중

심부 쇼핑몰인 라라포트 토요일 및 라라포트 타치카와에 매장을 오픈했다. 오는 9월 지역 랜드마크 쇼핑몰인 삿포로 스텔라플레이스에 매장을 연다. 이 밖에 지역 유명 쇼핑몰 및 패션 빌딩 중

심의 매장 확장, 각 지역 대표 백화점 팝업 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중국과 미국 시장도 브랜드 인지도 강화에 나선다. 중국에서는 올해 왕홍 등 유명 인플루언서와의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다. 이 밖에 기존 진출 국가 외 신규 국가로의 진출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2014년 한국과 함께 동시 런칭한 중국에서는 A급 백화점 입점 등 프리미엄 유아동복 수요를 공략했다. 진출 5년차 만에 매장수 200개를 달성하고 있다.

작년 5월 공식 브랜드관에 진출한 미국 아마존닷컴에서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방염 기준을 충족하는 전용 상품을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다. 모이몰른은 런칭 한 달 만에 아동 실내복 카테고리 상위권에

진입했고 지난해 말 월 평균 매출은 입점 초반 대비 약 6배까지 상승했다.

김지영 한세엠케이 모이몰른 사업 본부장은 "모이몰른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살린 디자인과 차별화된 소재, 제품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올 한 해를 기점으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 로드맵을 본격화하고 글로벌 K-유아동복 브랜드 대표주자로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다져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모이몰른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모든 구름의 색' 이벤트를 전개한다. 이번 이벤트는 자사몰인 스타일24와 모이몰른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한다. 모이(moi, 안녕)와 몰른(moln, 구름)이 합성된 브랜드명이 가진 의미를 재조명한다. 아울러 4개국 글로벌 고객들과 함께 각국 문화와 트렌드에 따라 다른 색으로 비칠 구름, '모이몰른'을 표현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터서

콤프레터서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 일반 인버터 타입 대비 **4%** 더 에너지 절약가능한 타입
2. FYH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유성열 : 0812 8037 0303 | 한상윤 : 0822 9999 1447 | Mariono : 0812 8763 965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JEPARA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